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7년 2월 8일 · 제 394호
항만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김은수 실장, 감수 김형태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미국 플로리다주 항만들과 쿠바 항만관리국 간 MOU 체결 계획 변경
2. 인도 및 아시아에 신규 LNG 시설 도입 예정
3. CMA CGM, 아시아-서아프리카 서비스 재편성
4. 우크라이나, 1월 항만처리물동량 전년대비 14.6% 증가

| 물류시장동향 |

1. UPS, 신속한 배송 위한 새로운 라벨링 시스템 도입
2. Hupac,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미국 플로리다주 항만들과 쿠바 항만관리국 간 MOU 체결 계획 변경

-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의 발표에 따른 갑작스러운 항만 계획 변경
 - 지난 1월 30일, 플로리다 주지사(Rick Scott)는 쿠바 등 독재 국가를 비롯한 카리브해 연안 국가와 협력하는 플로리다주 내 항만들에 대한 지원 철회를 발표
 - 이에 따라, 에버글레이드항(Port Everglades), 팜비치항(Port of Palm Beach) 등 일부 플로리다주 항만들은 쿠바와의 기존 양해 각서(MOU) 체결 계획을 변경 또는 철회
 - 이 논란은 50년 만에 수입된 최초의 상업용 선적품인 쿠바의 목탄(2개 컨테이너 분량)이 크라우리선사(Crowley Maritime)에 의해 에버글레이즈항에 도착하면서 시작
- 쿠바의 잔인한 독재 정권은 심각한 안보 문제와 직결
 - 릭 스콧 주지사는 플로리다주 일부 항만들과 쿠바 항만관리국 간 MOU 체결 계획에 대해 “플로리다 내 항만들은 쿠바 독재 국가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발표
 - 이 같은 결과는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(Raul Castro)의 억압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힘
 - 더불어, 플로리다주 부주지사(Carlos Lopez-Cantera)는 크라우리 선적의 “역사적”인 에버글레이즈항 입항에 대해 “잔인한 독재에 대한 수입을 창출하는 강제 노동의 결과물”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
- 플로리다 주 일부 항만들의 쿠바 항만관리국과의 MOU 체결 계획 변경 및 철회
 - 에버글레이즈항은 쿠바 항만관리국 대표단을 초대한 가운데 양국 간 무역 기회를 논의하고 당초에는 쿠바 항만관리국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보류
 - 이에 에버글레이즈항 최고경영자(Steve M. Cermak)는 MOU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릭 스콧 주지사의 발표 후 쿠바 항만관리국과 에버글레이즈항은 MOU 체결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
 - 또한, 쿠바 항만관리국 대표단은 팜비치항을 방문하였으나 팜비치항은 릭 스콧 주지사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기존 MOU 체결 계획을 철회
- 플로리다주 항만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1억2,500만 달러 지원
 - 릭 스콧 주지사는 플로리다 항만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1억2,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항로 및 선화장 확장, 대형선박을 위한 하역 장비 보강 등이 계획에 포함될 예정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, 2017.1.30.

박주동 전문연구원
051-797-4660, jdpark@kmi.re.kr



인도 및 아시아에 신규 LNG 시설 도입 예정

- LNG 통합 운영사인 AG&P¹⁾는 Hindustan LNG와 인도 안드라 프라데쉬(Andhra Pradesh)의 동 고다바리(East Godavari) 지역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
 - AG&P는 계약에 따라 안드라 프라데쉬의 카키나다항(Kakinada port)에 새로 건설된 LNG 수입 터미널에서 가스로 전환된 LNG를 운송하게 될 것임
 - 해당 계약으로 안드라 프라데쉬 지역의 발전소, 비료공장, 냉장저장고 및 다른 산업과 동부 해안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시장도 전력공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
 - AG&P는 LNG 수입 터미널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발전소 및 최종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시설의 계획과 건설을 책임질 것임
 - 이외에도 LNG 공급관련 모든 필수 전환 작업,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의 작업도 계약에 따라 수행할 것임

카키나다항 LNG 수입 터미널 조감도



자료 : www.maritime-executive.com

- 작년 12월, AG&P는 리스코 에너지 그룹²⁾과 중·소규모 LNG 터미널과 인도네시아 LNG 공급망을 계획, 건설 및 운영할 합작회사를 설립함
 - 합작회사는 인도네시아 해안, 강, 도로에서 저장, 수송, 가스전환, 발전 및 전체 터미널 운영관련 해결책을 제공할 계획임

1) Atlantic, Gulf and Pacific Company, 필리핀 기반의 세계적 LNG 공급망 건설 및 운영회사

2) Risco Energy Group,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발전부분에서 오랫동안 영업한 에너지 투자회사



- 이뿐만 아니라, 2016년 10월 AG&P는 4,000~8,000m³ 규모의 초박형 흘수 LNG 수송선 도입계획을 발표했다
 - 해당 선박은 흘수가 2m여서 강이나 수심이 깊지 않은 항구에도 접안이 가능함
 -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규모 LNG 산업부문에서 최초로 초박형 흘수 LNG 수송선을 도입하게 되는 것임
 - 해당 수송선을 이용하면 수심이 얕아 진입 제한이 따랐던 강과 항구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최종 소비지까지 LNG를 완전하게 운송하는 연근해 LNG 운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
 - AG&P는 16개월 안에 필요 재원을 확충해서 필리핀의 자사 조선소에서 해당 LNG 수송선을 건조할 것이라 밝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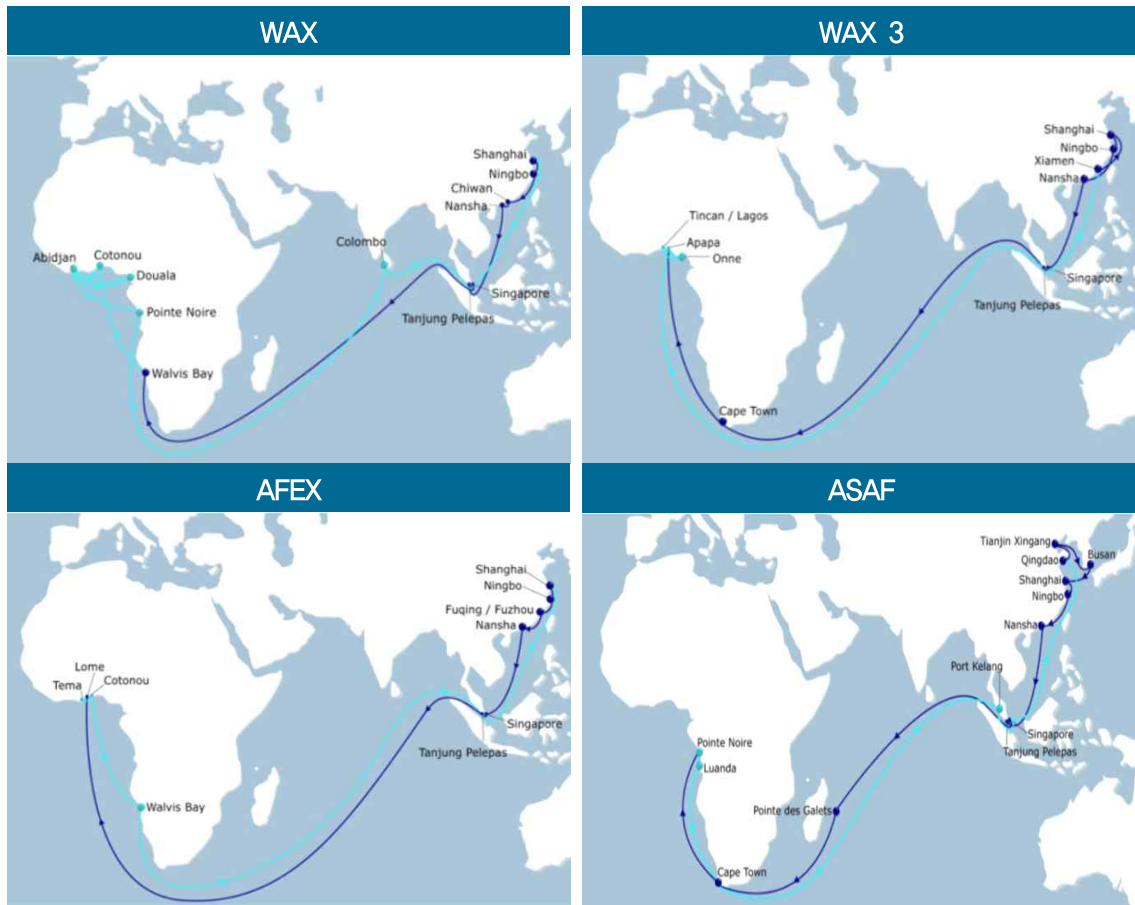
자료 : www.maritime-executive.com, 2017.1.30.

박창근 전문연구원
051-797-4781, beinji2@kmi.re.kr



CMA CGM, 아시아-서아프리카 서비스 재편성

- 2017년 3월 첫째 주부터 CMA CGM은 아시아~서아프리카 주간 서비스를 5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기로 결정함
 - 5개의 서비스 가운데 WAX 2 서비스가 철회됨 해당 항로에는 4,500~5,400 TEU급 선박 10척이 운항 중
 - WAX, WAX 3, AFEX 등 3개 항로는 서아프리카 항만 로테이션에서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되며 서아프리카의 중부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
 - ASAF 서비스는 변동 없이 운영 예정
- WAX서비스는 4,350 TEU급 선박 12척이 운항되고 있음. 개편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아비장(코트디부아르)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임
 - 상하이에서 아비장까지 운항 일수는 37일 정도 예상
 - 운항항로는 상하이(Shanghai) - Ningbo(Ningbo) - Chiwan(Chiwan) - Nansha(Nansha) - Tanjung Pelepas(Tanjung Pelepas) - Singapore(Singapore) - Walvis Bay(Walvis Bay) - Cotonou(Cotonou) - Abidjan WB(Abidjan WB) - Douala(Douala) - Abidjan EB(Abidjan EB) - Pointe Noire(Pointe Noire) - Colombo(Colombo) - Singapore(Singapore) - Shanghai(Shanghai) 순
- WAX 3 서비스는 CMA-CGM 파트너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4,500 TEU급 선박 12척을 운항 중임. 나이지리아까지 가는 항로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가할 예정임
 - 운항항로는 샤먼(Xiamen) - Shanghai(Shanghai) - Ningbo(Ningbo) - Nansha(Nansha) - Singapore(Singapore) - Tanjung Pelepas(Tanjung Pelepas) - Cape Town(Cape Town) - Apapa(Apapa) - Tin Can/Lagos(Tin Can/Lagos) - Onne(Onne) - Apapa EB(Apapa EB) - Tanjung Pelepas(Tanjung Pelepas) - Xiamen(Xiamen) 순
- AFEX 서비스는 CMA-CGM 파트너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4,350 TEU급 선박 12척을 운항 중임. 기존의 아비장 서비스를 코토누(베냉)서비스로 대체함
 - 운항항로는 상하이(Shanghai) - Ningbo(Ningbo) - Fuzhou(Fuzhou) - Nansha(Nansha) - Singapore(Singapore) - Tanjung Pelepas(Tanjung Pelepas) - Lome(Lome) - Tema(Tema) - Cotonou(Cotonou) - Walvis Bay(Walvis Bay) - Tanjung Pelepas(Tanjung Pelepas) - Shanghai(Shanghai) 순
- ASAF 서비스는 9,350 TEU급 선박 12척이 운항 중임
 - 운항항로는 기존대로 유지되며 Qingdao(Qingdao) - Xingang/Tianjin(Xingang/Tianjin) - Pusan(Pusan) - Shanghai(Shanghai) - Ningbo(Ningbo) - Nansha(Nansha) - Tanjung Pelepas(Tanjung Pelepas) - Singapore(Singapore) - Pointe des Galets(Pointe des Galets) - Cape Town(Cape Town) - Pointe Noire(Pointe Noire) - Luanda(Luanda) - Cape Town(Cape Town) - Port Kelang(Port Kelang) - Singapore(Singapore) - Qingdao(Qingdao) 순



자료 : www.cma-cgm.com

자료 : www.cma-cgm.com, 2017.2.2.

전우현 연구원
051-797-4615, jwh0321@kmi.re.kr



우크라이나, 1월 항만처리물동량 전년대비 14.6% 증가

오데사 항만 전경



자료 : <http://www.port.odessa.ua>

- 올해 1월 우크라이나 항만들은 총 1,003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함
 - 이 수치는 전년대비 약 14.6% 증가한 수치로 이 중 수출은 809만 톤으로 전년대비 30.3% 증가, 수입은 142만 톤으로 9% 감소, 통과화물은 47만 5천 톤으로 전년대비 50% 감소함
 - 항만을 통해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48,911 TEU로 전년대비 30.5% 증가함
-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소속의 항만운영사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182만 톤으로 전년대비 18.2% 증가하였으며, 그 외 민간운영사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821만 톤으로 전년대비 81.8%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
- 특히 우크라이나의 대표 항만인 오데사항³⁾은 동기간 처리물동량 197만 톤으로 전년대비 20.1% 증가함
 - 처리된 화물 중 건화물은 190만 톤으로 전년대비 28.5% 증가로 주요화물인 곡물은 84만 톤 전년대비 48.3% 증가, 금속제품 53만 톤 전년대비 19.8% 증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총 33,689 TEU를 각각 기록하였음
 - 반면 액체화물은 7만6,800톤으로 전년대비 54% 감소하였으며, 그 원인으로는 내부 정치적 요인이 있음

자료 : tass.ru, 2016.12.21.

이하림 연구원
051-797-4758, harimy@kmi.re.kr

3) 오데사항은 우크라이나 남서지역의 오데사만에 위치한 항만으로 총 면적 141헥타르로 최대 길이 330m, 깊이 30m의 선박 정박이 가능하며, 연간 처리물동량은 건화물 2,100만 톤, 액체화물 2,500만 정도임



물류시장동향

UPS, 신속한 배송 위한 새로운 라벨링 시스템 도입

- UPS는 해상/항공 화물의 신속한 배송을 위해 유통센터를 우회하는 새로운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함
 - UPS Trade Direct⁴⁾ 서비스를 통해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는 개별 화물에 최종 목적지가 표기된 라벨 추가 가능
 - 원산지에서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면 배송시간이 하루 정도 단축되며, 고객들은 대서양 향해 중인 운송화물을 “떠다니는 물류창고”로 이용할 수 있음
- 이 서비스는 아시아-미국 노선에만 제공되며, 시장 수요에 따라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 될 예정임

자료 : www.aircargonews.net, 2016.2.2.

강선미 연구원
051-797-4776, sunmikang@kmi.re.kr

Hupac,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

- Hupac은 스위스의 철도 회사로 해상 복합 운송 사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계열사인 Hupac Maritime Logistics GmbH를 세웠음
 - Hupac은 세관과 공컨테이너 취급 프로세스 등이 구축되면 2016년 1분기내로 자체 해상 루트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
- Hupac은 중국-유럽간의 운송을 위한 새로운 해상 복합 운송 네트워크를 개설할 예정 이라고 밝힘
 - Hupac은 2016년 처음으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며, 출하횟수가 737,311건에 도달함
 - 운영센터는 로테르담이나 앤티워프에 마련될 예정임
- 본 비즈니스의 목표는 “Landbridge China”를 실현하는 것이며, 이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피더 열차는 2017년 1분기에 운영할 것으로 예상함

자료 : www.worldcargonews.com, 2016.2.1.

김주혜 연구원
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

4) UPS Trade Direct: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에 도어 투 도어(Door to Door) 서비스를 결합시켜 만든 혁신적인 서비스